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서 일떠선 민들레학습장공장은 전국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학습장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공장이름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신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이 따로없는 줄기찬 전투를 벌임으로써 연간 생산능력이 5, 000만권에 달하는 현대적인 학습장공장을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1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견본으로 생산한 학습장들을 보아주시고 학습장의 갈피에 몸소 뜻깊은 친필들도 남기시였으며 오늘은 총정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들레 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뻐했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흠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학습장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두고 마음을 쓰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학습장생산과 관련한 수백차에 달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들레 학습장공장을 일떠세우므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했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서 질 좋은 학습장들이 생산되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정말로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습장생산정형

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민들레 학습장공장의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선 결과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민들레 학습장공장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수십종에 달하는 학습장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모두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종이의 질도 좋고 제책도 흠잡을데 없으며 도안도 학생들의 연령심리에 맞게, 파목별특성에 맞게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만든 질 좋은 학습 품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

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의 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민들레 학습장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한해에 현재는 5, 000만권, 앞으로는 1억 5, 000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할데 대한 문제, 기업관리의 정보화수준과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율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공장에 포장용기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철도인입선을 건설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들레 학습장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껴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줌으로써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들레 학습장공장에서 울려 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공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 해외동포들의 그리움의 노래, 맹세의 노래

## 래양민족의 긍지를 노래와 춤에 담아

\* 재일조선인예술단 \*

얼마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이채를 띠는 공연무대를 펼친 예술인들중에는 재일조선인예술인들도 있다.

몸은 바다 건너 멀리 있어도 언제나 태양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뜻깊은 공연장으로 달려온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은 노래와 무용 《태양민족 제일일세》에서 이 세상 누구나 누릴수 없는 위대한 태양민족으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 한껏 터치었다.

소해금과 무용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와 《내 나라》 등 종목들을 통하여 그들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를 이어 온 세상에 빛내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총련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 래일도 있음을 가슴뜨겁게 이야기해주는 무용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관객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잡았다.

《이역땅에서 사는것이 정말 험치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돌아치는 온갖 탄압의 찬바람을

돌파하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도록 떠밀어주는 힘이 있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강대한 조국이 있다는 긍지, 이것이야말로 이역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려가게 하는 크나큰 힘의 원천이다.》고 마음속 신념을 웨치던 재일조선인예술인들.

지난날 나라를 빼앗겨 상가집개만도 못한 신세를 눈물속에 한탄만 해야 했던 재일동포들이 오늘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 된 땀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주주의적민족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가고있는 현실을 무용은 세련된 톨동으로 잘 펼쳐보여주었다.

이역만리에서도 오직 태양만을 따르는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려는 자기들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노래 《내 마음 팔지 않으리》, 《이역의 아리랑》, 《바다에 전한 마음》도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은 종장 《원수님 따라 총련 앞으로》에서 고조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기에 오늘의 강대한 조선이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안은 총련동포들의 억센 마음을 담아 무대에 펼친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의 공연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본사기자 김혜성



재일조선인예술단의 혼성증장 《우리의 김정은동지》

\* 재일조선인예술단 \*

### 원수님 따라 오직 한길로

봉화에예술극장에서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태양절을 맞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흥모의 정을 안고 사랑가를 부르는 재일동포들의 모습을 실화와 무용 《그리움의 노래》를 통하여 감명깊게 펼쳐 보였다.

만민의 태양을 그리는 재일동포들의 마음은 남성독창 《언제나 수령님 우리리》와 여성독창 《내 마음 언제나 그이 곁에》, 《그리움은 끝이 없네》와 같은 종목들에도 뜨겁게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으며 살아온 재일동포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자리마다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순간도 잊지 않고 절세의 위인들만을 끝까지 믿고 따를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담은 종목들은 관람자들을 송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했다.

조국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최경호가수는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속에 무대에 나와 《불타는 소원》, 《조국과 나》를 불러 장내를 절세위인들에 대한 흥모의 정으로 끓게 하였고 황해월가수와 《우리 집 사람》을 흥취나게 불러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은 노래와 춤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통하여 지구상에 나라도 많지만 주로 존엄 높고 선군으로 위용 떨치는 어머니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소리높이 구가하여 관객들의 절찬을

받았다. 한생토록, 대를 이어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만을 따라갈까지 갈 재일동포들의 총정의 마음을 힘있는 무용률동과 세련된 예술적 기량으로 펼쳐보인 무용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이 무대에 펼쳐놓은 공연종목들은 단순한 음악적형상이 아니다.

그것은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이역땅에서 애국의 대, 신념의 대를 역세게 이어나가려는 재일동포들의 굳은 신념과 맹세의 뜨거운 분출이었다.

본사기자 류현철



재일조선인예술단의 혼성2증장 《우리 집사람》



재일조선인예술단의 노래와 무용 《태양민족 제일일세》와 여성독창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제30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한 재미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되었다.

소해금독주 《아무도 몰라》로 시작된 공연은 관현악 《발걸음》, 요한 슈트라우스작곡 《봄의 소리》, 교향곡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중에서 제4악장 《우리는 맹세한다》의 연주로 진행되었다.

이들이 무대에 올린 작품들에는 시련의 광풍이 휘몰아쳐도 정의와 진리로 뭉친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절대로 가로 막을수 없다는 재미동포들의 굳은 신념이 깃들어 있다.

하기에 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아무리 갖은 발악을 다 해도 최후승리의 봄은 반드시 오

고야말라라는 확신을 더욱 가다듬으며 연주자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였다.

소해금독주 《아무도 몰라》는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참다운 사랑을 꽃피워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랑만에 넘친

형상하였다. 특히 재미동포 음악가 리준무가 지휘한 관현악 《발걸음》은 천둥치는듯한 통쾌한 멋이 있었다.

도입부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리듬이 공화국의 밝은 앞날을 예고하듯 점점 커가다가 천만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보폭을 맞추고 자주동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겨레의 힘찬 투쟁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공연은 교향곡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중에서 제4악장 《우리는 맹세한다》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관현악의 증강부분에서 울려나오는 영생불멸의 혁명승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해빛같은 그미소 그림습니다》를 통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를 그리는 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굳은 의지를 훌륭히 형상한 공연은 관객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고영숙

## 태양너머 멀리 있어도

\* 재미조선인예술단 \*

정신세계를 예술적으로 잘 펼쳐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미제침략자들을 쳐몰리치는 싸움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가는 자랑을 안고 전선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아안은 처녀의 기쁨을 펼쳐보이는 공연은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에도 끄떡함이 없이 승리를 펼쳐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예술적으로 잘

군민의 힘찬 발걸음소리로 힘차게 승화되는 관현악연주는 첫 수소탄 시험성공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 성파적발사로 세상천지를 진동시키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배합관현악에 의한 특색있는 음식과 화음을 통하여 관현악은 경애하는

노래》와 《해빛같은 그미소 그림습니다》를 통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를 그리는 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굳은 의지를 훌륭히 형상한 공연은 관객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고영숙



재미동포 음악가 리준무가 지휘한 관현악 《발걸음》



재미조선인예술단의 소해금독주 《아무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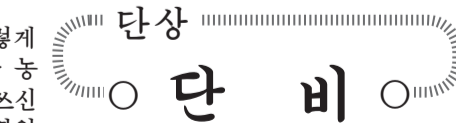
울봄엔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 며칠전에도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새 내려서 땅을 푹 적시었다. 봄을 맞아 얼굴을 다시 내민 잔디와 푸른 잎새를 펼치는 나무들이 물기를 머금으며 좋아하는것은 물론이고 더 기뻐하기는 한해농사를 책임진 농민들이다. 지금은 파종기인데 때맞춤 토지를 흠뻑 적셔놓았으니 말이다.

예로부터 봄비는 풍년비라고 일러왔고 봄철에 비가 내리면 그해엔 풍년이 든다는 격언이 전해져내려온다. 세월이 한창인 때 드넓은 전야에 내리는 비는 그야말로 곡식의 새싹들에는 약비라 할수

있다. 지난해에는 수십년래의 왕가물이 들어 파종기에도 많은 눈과 발이 말라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봄비가 자주 많이 내려 올해농사가 더 잘 될거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면서 4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것은 늘 농사문제를 두고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땅의 풍년을 위해 저 하늘의 단비를 내려보내주시는것이라고 감동에 젖어 말하곤 한다.

단비, 참으로 의미있는 말이다. 적대세력들의 고강도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이 땅에 찾아온 봄의 의미도 그렇지만 올해의 풍년작황을 그



려주며 내리는 단비도 무심하게 스칠수 없는 깊은 의미로 안겨와 종일토록 맛고싶은 4월의 봄비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주시는 사랑의 단비. 생전에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하여주시러 80고령의 년세에도 협동벌의 포전들을 견고걸으시었다. 어느 해였던가. 겨우내 봄내 가물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던 그날은 4월 15일이였다. 수령님께서 비가 내리는것이 너무 기쁘시여 옷이 흠뻑 젖어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비를 맞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생일, 생일하는데 비가 오니 생일보다 더 기쁘다고, 비가 오니 얼마나 기쁘시 모르겠다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시면서 그날 종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었다. 탄생일마저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가뭄든 땅에 비가 내리는것이 반갑고 기쁘시여 옷자락을 다 적시시던 그이의 환하신 미소를 어이 세월이 간다한들 잊을수 있으랴.

수령님께서 걸으신 농장길, 포전길들에 오늘도 봄비가 내리고있다. 그 봄비로 하여 이 나라의 포전들에서는 곡식들이 파아란 잎새를 돋우며 싱싱하게 자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이 가득 넘쳐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복의 화원으로 가꾸어가시는 이 땅에 더 좋은 앞날, 더 밝은 미래를 그려주며 비가 내리고있다.

이 봄비는 자강의 힘으로 더 좋은 래일을 마중가는 인민들의 생활에 기쁨을 더해 주고있다.

리경월







# 민심에 역행하는 역적무리들은 추호의 용서없이 단호히 매장해 버려야 한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박근혜당은 집권후 반인민적악정과 《유신》과썬독재부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을 일삼아온 추악한 행적과 만고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내외여론들은 이번 선거를 박근혜에 대한 격노한 민심이 폭발한 《무혈선거혁명》으로 평가하면서 청와대안주인은 더 이상 맥을 칠수 없는 산송장, 《식물대통령》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신랄히 조소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박근혜가 집권 3년간 역대 통치배들도 감히 엄두내지 못한 반역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완전한 버림과 저주를 받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축도판이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아직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고 저들의 반역정책이 선거참패와 무관한듯이 변명하면서 총파산의 막다른 궁지에

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 나타난 박근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일하는 국회》가 되어달라니, 《중단없는 개혁추진》이니 뭐니 하고 철면피하게 놀아냈다.

그런가 하면 북남관계를 최악의 과국상태에 몰아넣고 조선반도를 핵전쟁발발의 최극단에 이르게 한 죄악에 대해 온 민족앞에 사죄할 대신 《북의 돌발적도발》에 대비한 《여야의 합심》이 필요한 때라고 쉼처대면서 반공화국대결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할 교활한 속내도 서슴없이 드러내놓았다.

한편 박근혜는 초상집이 된 《새누리당》안의 심복들을 내세워 제인이 쫓아낸 무소속당선자들을 끌어모아 제1당의 지위를 강탈해보려고 날뛰고있는가 하면 피퇴검찰을 사촉하여 선거법위반조사놀음을 벌리

면서 야당소속 당선자들을 몰아내고 민주개혁세력을 위축시켜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박근혜의 이러한 발악적책동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고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박근혜는 《선거의 념왕》이라는 환각에 빠져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옷을 걸치고 《야당을 심판하라.》느니, 《국회를 몰락시키라.》느니 뭐니 하며 여기자거리를 돌아치으며 전례없는 《부풍》조작놀음까지 벌리면서 최후발악을 다하였다.

때문에 내외여론은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의 패배이기 전에 박근혜의 오만과 불통, 무능과 독선에 단호한 징벌을 내린것이라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박근혜가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낄줄 알고 초보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앞에 지은 죄악에 대해 골백번 엎드려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개교리 3년이 되어도 황모 못된다고 민심의 심판을 받고 만신창이 된 지금에 와서도 유독 박근혜만은 청와대안방에 틀어박혀 남조선민심에 배척하고 경멸하는 반역정책들을 계속 불통고 살길을 열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더우기 박근혜당이 극악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내고 민족의 머리위에서 더욱 위험천만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은 민심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남조선민심은 《신평프로세스》나, 《통일대박》이니 하면서 《흙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북남

관계를 과국에 몰아넣은 박근혜당의 동족대결정책에 준엄한 사망선고를 내리었다.

그것은 박근혜당의 손발이 되어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줄개들이 줄줄이 락선되고 보수패당속에서까지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떠드는 바람에 보수층민심까지 등을 돌렸다.》는 개란이 터져나오고있는 사실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이 다 반대하는 대결정책을 한사코 고집하고있으니 박근혜야말로 세상이 자기를 얼마나 경멸하고 저주하는지 모르는 역겨운 인간오작품, 온 겨레에게 화난만을 몰아오는 살기면 마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반 사실은 《유신》과썬독재동족대결에 미칠대로 미쳐 반인민적악정과 반통일대결책동을 일삼는 박근혜당을 그대 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에서 달랠것이란 아무 것도 없으며 북남관계는 더욱 더 예측할수 없는 과국에로 치

단계 되고 온 겨레가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락을 초월하여 민심에 도전하면서 천하의 악행을 덧쌓고있는 박근혜당의 독선과 독단, 전횡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려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동족대결을 극대화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험천만한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있는 특등제앙거리인 박근혜당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제거해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기마련이다. 박근혜당은 민심에 도전하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반인민적악정과 동족대결에 매달릴수록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의 더 큰 저주와 규탄속에 종국적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주제105(2016)년 4월 21일 평양

### 남조선의 보수 언론들에 공화국의 현실을 외곡, 조작, 각색한 각종 보도와 소식들이 차넘치고 있다.

매일과 같이 그 무슨 제재에 의한 《북주민들의 불안》과 《체제 불안정》, 《경제침체》와 같은 《북 내부소식》들과 《전쟁준비태세 돌입》, 《테러전담세력 집결》, 《GPS교란시도》, 《북에 의한 해킹》과 같은 보도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심지어 누구의 《금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지대에 대병력이 배치되고 《평양점령계획이 작성되었다.》느니 따위의 꾀변들도 내뿜고있다.

남조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북소식》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것인지 최근 평양을 다녀간 한 해외동포는 이를 반박폭로하는 글까지 발표했다.

그러면 이런 량설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나

오는가 하는것이다.

정보원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물물름 없는 감시와 《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의 무차별적 인 적용으로 공화국의 현실목격과 청취가 철저히 차단되고있는 남조선에서 이따위 어처구니없는 나발들이 나옴에는 오직 한 군데이다.

이미 피퇴정보원이 조선반도주변국들에 《특별팀》을 파견하고 공화국에 대한 각종 모략자료들을 꾸며내어 진실처럼 퍼뜨리고있다는것은 폭로된 바있다.

여기에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을 비롯한 모든 피퇴정부기관 요원들이 망라되어있으며 이를 청와대에서 파견한자가 총지휘한다고 한다.

그러니 남조선에서 돌아오는 온갖 북관련모략 보도들이 청와대의 치마두른 안주인의 지령에 의해 조작되고 퍼뜨려진다는것이 증명된셈이다.

모략날조의 진상은 박근혜가 공화국에 대한 압살을 실현해보려고 얼마나 비열하고 나절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다시한 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비방증상과 각종 모략선전이 남조선에서 지금처럼 악랄

하게 감행된것은 일찌기 없었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집권기간 남조선사회를 파썬와 폭압의 란무장으로,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가 깡그리 말살된 사람 못살 세상으로 만들어버린데 대한 쌓이고쌓인 민심의 분노를 북남대결과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돌리며 미국과 입을 맞추며 조작성낸 《제재결의》가 그 어떤 《효과》라도 내는듯이 여론몰이를 해보려는것이다.

하지만 박근혜가 아무리 외곡날조에 발광해도 눈부신 비약으로 활기찬 공화국의 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꿈은 쓸개때문에 죽지만 사람은 혀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는 모략과 음모만을 내뿜는 세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

김유성

선거후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당구정을 내들며 원내대표인 원유철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어떻게 하나 친박계인물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내주도권을 계속 장악하자는데 있었다.

선거를 주창으로 만들어놓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놀아내고있는 친박계의 행동에 비박계가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비박계는 즉각 《총선 당내주도권장악을 위한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싸움을 촉발시키고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국회》의 원내대표 선출과 내년엔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총괄하는 당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를 주도하게 될 기구인것으로 하여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암투는 그야말로 치열하다.

친박계는 당구정을 내들며 원내대표인 원유철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어떻게 하나 친박계인물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내주도권을 계속 장악하자는데 있었다.

선거를 주창으로 만들어놓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놀아내고있는 친박계의 행동에 비박계가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비박계는 즉각 《총선 당내주도권장악을 위한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싸움을 촉발시키고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국회》의 원내대표 선출과 내년엔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총괄하는 당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를 주도하게 될 기구인것으로 하여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암투는 그야말로 치열하다.

친박계는 당구정을 내들며 원내대표인 원유철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어떻게 하나 친박계인물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내주도권을 계속 장악하자는데 있었다.

선거를 주창으로 만들어놓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놀아내고있는 친박계의 행동에 비박계가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비박계는 즉각 《총선 당내주도권장악을 위한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싸움을 촉발시키고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국회》의 원내대표 선출과 내년엔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총괄하는 당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를 주도하게 될 기구인것으로 하여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암투는 그야말로 치열하다.

###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끝난 이번 《국회》의 원선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것은 집권자인 박근혜이다.

한것은 이번 선거가 야당이 내든 《정권심판》대 집권자와 여당이 내세운 《국회(야당)심판》간의 대결이었기때문이다.

《선거의 념왕》이라고 으시대던 박근혜는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악을 쓰며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였지만 민심은 거꾸로 《정권》에 호된 심판을 내렸다.

선거전 인터넷에는 한 야당후보가 박근혜를 총으로 저격하는 선전물이 내걸려 각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 광고대로 박근혜는 민심의 《총》에 맞았다.

왜 맞았는가. 독재와 무능, 악정이 자

려나오고있다. 지어 《새누리당》을 위해 박근혜를 《탈당》시켜야 한다는 설도 나오고있다.

극악한 동족대결로 온 겨레의 규탄배격을 받는 데다 남녘민심의 중요의 심판까지 받아 최악의 위기에 몰린것이 박근혜의 신세이다.

그런데도 이런 처지가 될줄 모르고 득의양양해서 1인독재를 하고 《평양진격》, 《참수작전》이니 하며 동족대결에 광분한 박근혜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 《대통령》인가.

죄악에는 벌이 따른다고 했다. 민의에 도전하고 겨레의 리익을 해치는 것은 못된것을 다한 박근혜가 비명에 횡사한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밟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친박계는 당구정을 내들며 원내대표인 원유철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어떻게 하나 친박계인물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내주도권을 계속 장악하자는데 있었다.

선거를 주창으로 만들어놓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놀아내고있는 친박계의 행동에 비박계가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비박계는 즉각 《총선 당내주도권장악을 위한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싸움을 촉발시키고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국회》의 원내대표 선출과 내년엔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총괄하는 당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를 주도하게 될 기구인것으로 하여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암투는 그야말로 치열하다.

친박계는 당구정을 내들며 원내대표인 원유철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어떻게 하나 친박계인물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내주도권을 계속 장악하자는데 있었다.

선거를 주창으로 만들어놓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놀아내고있는 친박계의 행동에 비박계가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비박계는 즉각 《총선 당내주도권장악을 위한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싸움을 촉발시키고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국회》의 원내대표 선출과 내년엔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총괄하는 당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를 주도하게 될 기구인것으로 하여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암투는 그야말로 치열하다.

